

# '살해 협박' 담은 현수막은 정치 테러다

최태호의 맛있는 우리말



## 사약(賜藥) 이야기

사람은 참으로 단순하다. "임금이 사약(死藥)을 내렸으니 죽을 사(死) 자 사약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며 필자에게 따진다. "먹으면 죽는 약"이므로 '사약(死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럴 때 사약은 극약이나 독약의 의미로 쓰이는 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 내리는 약은 사약(賜藥)이라고 해야 한다. 사약(賜藥)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임금이 죽을 죄를 지은 신하에게 독약을 내림'이라고 나와 있다. 즉 먹고 죽을 약을 하사한다는 말이다. 그래서 '죽사(賜) 자를 쓴다. 흔히 사액서원(賜額書院)이라는 말이 있다. 임금이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현판)을 내려 준 서원을 이르는 말이다. 1550년(명종 5년)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현판과 서적을 하사한 것이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사약(瀉藥)도 있다. 설사가 나게 하는 약이다. 가끔 사람들과 농담처럼 하는 말이다. "설사약은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인가, 설사 나게 하는 약인가?" 하고 싶일이 웃기도 한다. '피로회복제'는 '다시 피로하게 만드는 약'인 것처럼 말이다. 요즘은 원기회복제로 바뀐 모양이다. 바람직한 현상이다. 먹으면 죽는 약도 있다. '농약'이 그것이다. 참으로 우리말은 재미있다. 허허허.

중부대 한국어학과 교수 · 한국어문화회 회장



## 조희문의 영화세상

영화평론가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이건 테러다. 살해 협박을 담은 플래카드를 버젓이 내걸다니.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지역구에 내걸린 '나에게 한 발의 총알이 있다면 미국노를 처단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대형 현수막은 이재명의 열혈 지지자가 비판 세력에게 보내는 협박이자 경고다. 양반의 수탈에 맞서는 '군도-민란의 시대'(2014)나 멕시코 마약 갱단의 내부를 조망하는 '시카리오-암살자의 도시'(2015) 같은 영화들에는 사람의 목을 잘라 걸어 놓은 장면이 등장한다. 반역을 했다는 핑계로 또는 조직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어 탄마음 먹지 못하게 하는 겁 주기다. 잔인한 방법일수록 공포 효과는 더 커진다. 총칼 같은 물리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만이 테러가 아니다. 말이나 글·현수막 따위를 내걸며 위협하는 것 역시 폭력이고 테러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화된 현대 사회다. 다른 나라의 원조로 겨우 연명하던 전쟁 직후의 나라도 아니다. 사고 집단의 광신적인 숭배 모습은 간헐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사회의 시선을 모았다. 1937년 경찰에 적발된 '백백교' 사건은 살해 암매장된 시신만도 346명이 나왔고 교주는 마음에 드는 여신도가 있으면 끌어다 성폭행하고 시녀로 삼았다고 하며 그 수가 60명이 넘었다고 한다. 오대양 교주와 신도들의 집단



더불어민주당 친명계가 내건 현수막. 살해 협박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고 위협하는 건 우리 사회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다. 스카이데일리

자살 사건은 세상을 발각 뒤집었다. 1987년 8월 경기도 용인 남사면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교주 박순자가 오대양이라는 사업체 겸 사교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던 중 추진하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궁지에 몰리자 열혈 추종 신도들과 함께 집단으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교주가 무슨 말을 하든 신도들이 맹신한다는 점이다. 교주의 말 앞에서는 재물도 의미가 없고 정조 역시 한낱 품목에 지나지 않는다. 심하게는 목숨까지 헌신적 버리듯 내놓고 내세나 환생을 확신한다. 사고 집단에서나 볼 수 있었던 열혈 추종이 정치 권으로 옮겨 간 것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이 처음이다. 2000년 4월,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노무현이 낙선하자 그를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인 팬클럽이다. 선거유세 지원을 했고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당선되는 데 기여를 했지만 단체 내부의 노선 갈등이 있었다. 과격하고 격렬한 지지활동이 '배타적인 추종'이란 비난을 받아 2019년 9월, 새로 설립된 노무현재단에 자료 일체를 넘겨주고 자진 해산했다. 단체 이름은 없어졌지만 주도 인물 대부분은 그대로 옮겨 갔다는 점에서 얼굴 화장만 바꾼 채 추종 활동은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때 '노사모'는 '노빠'라고 불리며 특정 정치인을 추종하는 극렬지지자의 대명사처럼 통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 집단이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이들은 무조건 문재인을 지지한다. 대통령 취임 초기 '이니 마음대로 해'라는 구호는 이 집단의 맹목성을 보여 주는 상징이 되었다. 상대적으로 노사모가 선택적 비판이라도 한 것과는 달리 문재인이 하는 일이라면 막무가내로 지지한다는 점에서 더 열혈 집단이 되었다. 다른 명칭으로는 '문빠'라고 불리지만 광신도적인 행동을 조롱하는 비하적

인 느낌이 강하다. SNS상의 지지 활동을 이어 가며 누군가 문제인을 비난하는 일이 있으면 그가 누구이든 공격하고 사이버 테러까지 저지른다. 김경수 경남 지사의 '드루킹 댓글' 사건에 이르러 이들은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지경의 빛나간 범죄 조직이 되었다. 이재명을 추종하는 '개팔'은 극단성이 극대화한 광란 집단의 상징이다. 어느 드라마에서 '개 같은 성격의 소유자'라는 뜻으로 처음 사용했지만 어느 사이 '개학의 팔'을 줄인 말로 통하게 되었고, 빛나간 추종자를 가리키는 멸칭이 되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수준을 넘어 반대자에 대한 겁 주기, 여러 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도 무조건 지지하기, 검찰 조사나 법원 출석 때 모여서 연호하기 등 민주사회를 유린하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 반대자라면 죽일 수도 있다는 현수막을 보란 듯이 내건 것은 정치적 구호의 한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 대한 협박이자 공개 테러다. 누군가 '총이 있다면 범죄 백화점의 주인공 이재명을 처단할 것'이라고 걸었다면 길길이 날뛰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요 언론에서조차 이것을 과격 집단이 벌인 해프닝 정도로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있다. 강 건너 불 보듯 하기는 경찰도 마찬가지다. 실제 해프닝을 당하여 긴장할 건가. 좌표 찍기로 겁박하고 살해 위협까지 공공연히 하는 세상이라면 더 이상 민주사회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계를 정해야 한다. 정치활동과 폭력은 구분되어야 마땅하고 건전한 지지자라면 분별심을 갖고 창조적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용비어천가 뺏치는 '명비어천가'



## 데일리 Talk

오주환 정치전문 기자

"해동 육룡이 나르샤 / 일마다 천복이시니 / 고성(古冢)이 동부(同符)하시니" 용비어천가는 세종 27년(1445년) 권제·정인지·안지 등이 임금에게 지어 올린 서사시이자 최초의 한글 시가다. 목조 이안사익도 이항라도조 이춘·환조 이자춘태조 이성계태종 이방원 등 여섯 대의 행적을 노래했다. 흔히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가 여섯 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작품으로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용비어천가는 임금이 갖춰야 할 덕목도 명시하고 있다. 바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 힘써야 나라가 더욱 굳건해진다'는 125장 구절 등이 그것이다. 해당 구절은 경천애민(敬天愛民)할 것을 강조한다. 민심이

곧 천심이라 했으니 민심이아말로 받들어야 할 궁극적 실체인 것이다. 조선 왕조는 일종의 왕권신수설을 신봉한 절대왕권 체제인 듯하지만 사실상 학자·관료의 순환체인 사대부가 임금의 독선을 견제했고 그런 이념이 '사관'들을 통한 제어에 녹아 있다. 실제로 태종 때의 사관 민인생은 태종이 낙마한 뒤 "기록하지 말라" 명령하자 "주상께서 낙마 사실을 적지 말라고 명령하셨다"고 태종실록에 써 넣었다. 자연히 역대 임금들은 몸가짐을 조심하며 오만에 빠지는 걸 스스로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2023년 대한민국 정계에서 조선시대 때보다 못한 분위기를 보여 아연실색하게 된다. 곳곳에서 때 아닌 '용비어천가', 아니 권력의 자기정당성만 주장된 '반쪽 용비어천가가' 울려 퍼진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친 민주 세력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든가, 이 대표의 리더십이라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국회 200석 확보는 충분하다는 주장 등이 난무한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대신

권력자의 눈치만 살피는 듯한 행보들이다. 앞뒤 없는 200석 압승론에 민주당 내에서도 고강도 질타가 쏟아졌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에게 오히려 매 맞을 소리"라며 "이제 겨우 지역 예선전(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을 치렀는데 우리가 월드컵 우승할 거라고 주장하면 좀 그렇다"고 꼬집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대세론·낙관론 운운, 총선 200석 확보로 윤석열정권을 무력화시키자고 하면 국민은 떠난다"며 "도취·건방·싸가지 언행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심지어 친명(친 이재명)계에서조차 쓴소리가 나왔다. 김두관 의원은 "위기가 몰려오는데 200석 압승론 떠드는 정신 나간 인사들이 있다"며 "20년 집권론 떠들다 5년 만에 (문재인) 정권이 끝났던 것을 벌써 잊은 것 같다"고 꼬아보았다. 민의를 받드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당 지도부가 쇠신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매거신이 이까저진 잔뜩 국민적 관심 모으기에 성공 중인 반면 민주당은 공천 탈락·사법시

크가 두려워 혁신에도 이슈에도 침묵하면서 국민들 관심 밖으로 저만치 밀려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 등의 협치 차출이 이미 결정돼 출마 지역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국민의힘보다 더 많은 다선의원들을 협치로 보내는 '내 살 깎기'를 시작해야 한다.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앞장서야 한다. '친명 안방비명 협치'로 방향 잡았다가는 100석도 못 건진다. 저를 포함한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 원로의 출선수범은 이미 나온 상태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6선의 박병석 의원이 6월 국회의원회관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개인보다 당, 당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국회의원의 모든 게 역사에 기록된다는 두려움을 늘 간직해 왔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당 안팎의 준엄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대역행적 '명비어천가'를 앞장서서 지양해야 한다. 국민 눈치 살피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다당제 체제에서 정치가 정상화하고 협치도 살아난다. 그럴 때 민생은 자연히 복원될 것이다. jhoh@skyedaily.com

## SkyeDaily

발행·편집인 조정진 주필 황종택 인세인 임채형 편집국장 고동석

(주)스카이데일리 창간일자 2011년 9월 2일 등록일자 2011년 7월 18일 등록번호 서울아01703(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가50131(일간신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서울시 중구 새문안로 26(충정로1가 청양빌딩) 7층 TEL 02-522-6595 Fax 02-522-6597 홈페이지 www.skyedaily.com 구독료 월 15,000원/연 180,000원



# 세기보청기

세기보청기는 정직합니다! · 정직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을 약속합니다 · 어떠한 편법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 세기보청기는 전국 세기보청기 대리점에서만 취급합니다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전국점** 서울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 02)2276-0587-9, 02)733-0220 /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 02)419-3388 / 마포점(만리동 고개 신한은행 근처) 02)706-0303 /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옆) 032)421-2288 / 수원점(남문 우리은행 앞) 031)246-5110 / 부천점(롯데백화점 중동점 옆) 032)329-4400 /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흥국생명 옆) 031)821-6655 / 안양점(백산쇼핑 2001 아울렛 옆) 031)469-0110-1 / 용인점(용인네거리) 031)336-1090 / 오산점(오산역 앞) 031)378-4183 / 구리.남양주점(구리동기소 앞) 031)593-9903 /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 051)818-8800 / 울산울산(공업탑로터리) 052)268-2283 / 경남 진주점(중앙로터리 옆) 055)745-9870 / 창원점(창원역 앞, 동명빌딩 5층) 055)273-8242 / 대구 동안점(동인네거리) 053)425-4440 / 삼척점(삼척네거리) 053)426-1511 / 남일동점(아카데미극장 옆) 053)425-7575 / 경북 포항점(육거리) 054)244-5110 / 안동점(구.안동농고네거리) 054)859-2248 / 광주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 062)225-5110 / 광주점(백운광장) 062)651-4477 /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 063)252-5728 / 군산점(구.시청정문 옆) 063)446-0198 /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 063)838-5600 / 남원점(시장네거리) 063)632-2626 / 대전 대전점(구.충남도청 앞) 042)254-5110 / 대전점(대전역 앞) 042)255-4900 /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 041)553-2888 / 공주점(공주큰사거리) 041)852-5110 / 충북 청주점(현.홍플러스구.속리산고속 맞은편) 043)222-1177-8 / 충주점(삼천로터리) 043)852-1414 /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 033)647-0588 / 춘천점(팔호광장 옆) 033)253-5110 /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 064)753-4358